

노동 윤리의 새로운 정향:

노동의 기회와 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소 병 철

주제분류 윤리학, 사회 윤리학

주요어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 새로운 노동 윤리, 대량 실업, 노동 소외, 자율적인 자기실현

요약문

생존의 수단인 동시에 자율적인 자기실현의 기회이기도 한 인간의 노동은 오늘날 두 가지의 시련, 즉 대량 실업과 노동 소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노동 인구의 상당수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고, 또 다른 상당수는 인격의 자율성과 심신의 건강을 심각히 저해하는 노동 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사회적 행위의 기준들을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는 대량 실업과 노동 소외라는 ‘구조적인’ 질곡과 그것의 극복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질곡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분발을 촉구해 왔을 뿐이다. 그러한 윤리에 따르면 노동은 설령 노동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그의 심신을 피로의 극단으로 몰고 가는 혐오스러운 고역일지언정 하나님의 소명이자 은총의 시험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그러한 질곡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오직 부지런히 일해야만 한다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과할 뿐, 그들을 온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배려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근면이라는 외형에 최우선을 두는 윤리는 노동 기회의 현실적인 보장과 노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모종의 사회 윤리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논자는 이 논문에서 그러한 새로운 노동 윤리의 가능성을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타진해 볼 것이다.

1. 노동 윤리의 새로운 정향은 왜 필요한가?

현대인으로서의 우리는 대개 일하고 쉬는 것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마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 즉 노동은 곧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손’노동과 ‘두뇌’노동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은 한편으로는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하는 노고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속박하는 필연의 굴레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단말마적인 생존의 몸부림으로 환원될 수만은 없는 어떤 의미를 우리의 삶에 부여하게 해 주는 자유로운 생명 활동이기도 하다. 일찍이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산을 할 경우” 노동은 “개성적인 삶의 표현을 향유”할 수 있는 자기실현의 기회이자 노동자의 “공동체적 본질(Gemeinwesen)을 확인하고 실현”¹⁾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유로운 생명 활동으로서의 노동이 지니는 그러한 초생물학적(超生物學的) 의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적인 노동은 단적으로 말해서 “자기실현, 즉 주체의 대상화”이며, 그런 한에서 “자유의 실행”²⁾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은 두 가지의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문제는 마르셀 스트루방(Marcelle Stroobants)이 “고용의 유연성, 실업의 경직성”³⁾이라는 말로 나타낸 구조적 대량 실업의 문제이다. ‘늪어 감’의 원죄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또

1) K. Marx, "Auszüge aus Mills "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in: *Marx-Engels Werke, Bd. 40*, Dietz Verlag, Berlin 1985, 462쪽.

2) K.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Engels Werke, Bd. 42*, Dietz Verlag, Berlin 1987, 512쪽. 마르크스가 본격적으로 제안한 ‘인간의 자기표현과 자기발전 혹은 자기실현으로서의 노동’ 개념에 관해서는 이재원, 「마르크스의 노동의 윤리성」, 『대동철학』 제29집, 대동철학회, 2005, 123-50쪽 참조. 물론 단순한 호구지책에 그치지 않는 노동의 인간학적 의의를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M. Stroobants, *Sociologie du travail*, Éditions Nathan, Paris 1993; 박주원 역, 『노동사회학』, 동문선, 서울 2003, 151쪽.

한 우리 사회의 불편한 이슈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 사회의 점점 더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인 노동 분업의 체계에 참여하여 자신이 공동체의 신망을 받는 유용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마르크스 이래로 이른바 ‘노동 소외’ 테제와 늘 결부되곤 했던 노동의 질 저하에 관한 문제이다. 마르크스가 고전적으로 분석했던 산업 혁명기의 조직화된 노동은 “노동자에게 외적인”, 다시 말해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고 느끼게(fühlt sich außer sich)” 하는 그러한 노동은 자발적인 노동이 아닌 한에서 “강제 노동”이요, 생물학적 자기 보존 본능의 압박만 없었더라면 누구나 기피했을 것이 분명한 “페스트”⁴⁾였다.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분석은 소위 블루칼라가 노동 인구의 절대다수였던 19세기 유럽의 전설로만 치부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3D 산업을 낙오자들과 이방인들의 계토로 만들어 버린 전 지구적 포스트 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평균적인 화이트칼라 역시 마르크스 시대의 공장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몹시 지루하며 융통성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입은 셔츠의 깃 색깔은 이제 의미 있는 노동과 의미 없는 노동, 즐거운 노동과 고통스러운 노동을 준별하는 기준이 못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컴퓨터 단말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무직 노동자는 지성과 창의성과 책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는 한, 드릴 프레스로 금속에 구멍을 뚫거나 조립 라인에서 볼트를 조이는 공장 노동자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미국의 노동 철학자 알 지니(Al Gini)는 그런 의미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일터의 ‘방정식’에는 노동자의 요구와 열망이 빠져 있다”⁵⁾고 말한다.

4)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in: *Marx-Engels Werke*, Bd. 40, Dietz Verlag, Berlin 1985, 514쪽.

5) A. Gini, *My Job, My Self: Work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Individual*,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0: 공보경 역, 『일이란 무엇인가』, 들녘,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사회적 행위의 기준들을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는 대량 실업과 노동 소외라는 ‘구조적인’ 질곡과 그것의 극복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질곡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분발을 촉구해 왔을 뿐이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장 칼뱅(Jean Calvin)의 프로테스탄티즘에 따르면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divine calling)이며, 부는 은총의 증거이다.⁶⁾ 따라서 무릇 인간은 매일매일의 고된 노동과 검약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아야만 한다. 근로는 설령 노동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그의 심신을 피로의 극단으로 몰고 가는 혐오스러운 고역일지언정 하나님의 소명이자 은총의 시험임에는 틀림이 없다. 노동의 질적인 내용보다 근면이라는 외형을 중시하는 이러한 노동 윤리는 근대 이래로 대다수 노동 인구의 자서전에 이데올로기적인 밑그림을 제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인용한 지니의 회상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아버지가 링컨을 가르쳤듯이, 내 주변의 남자들은 내게 그렇게 가르쳤다. 열심히 일하되, 그 일을 반드시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⁷⁾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천직으로 여기며 거기에 열정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개인적인 근면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노동 윤리의 가장 큰 문제는 대량 실업이나 노동 소외와 같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질곡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오직 부지런히 일해야만 한다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과할 뿐, 그들을 온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배려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

파주 2007, 102쪽.

6)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와 관련된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의 포괄적인 세속적 의미에 관해서는 P. Singer,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New York 1997, 77-88쪽 참조.

7) A. Gini, 앞의 책, 12쪽.

람들을 게으른 자들로 치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위도식 속에 자존을 내팽개친 파렴치한들이 아니라 자존을 드높일 기회를 찾지 못하여 절망한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인격의 자율성과 심신의 건강을 심각히 저해하는 노동 조건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으로 알며 이겨 내라고 설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승인’하려는 뜻을 묵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유할 수 없는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며, 그런 한에서 그것은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표현대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사보타주”⁸⁾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지니는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의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개신교 노동 윤리는 노동의 고역스러움과 불가피성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노동 윤리 신화의 전반적인 효과 중 일부는 노동자를 불가피한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노동 윤리 신화는 노동을 찬미하고 합법화하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게 만들고, 현실 속에서 일의 야만성을 잊게 하기 위해 노동에 목적론적 방향성 — 목표와 계획 — 을 부여했다.⁹⁾

그렇다면 윤리적인 의무로서의 노동이라는 개념은 그것의 역사적인 소임을 이미 다한 셈이다. 그것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영국 비국교도의 후예들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했던 노동 개념으로서 근면과 검약을 요체로 하는 불굴의 개척 정신이 개인과 공동체에게 절대적인 미덕일 수 있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대량 실업과 노동 소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근면이라는 외형에 최우선을 두는 윤리는 노동 기회의 현실적인 보장과 노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사회 윤리,

8) T. W. Adorno, *Negative Dialektik*,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5, 130쪽.

9) A. Gini, *My Job, My Self: Work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Individual*: 공보경 역, 『일이란 무엇인가』, 57쪽.

즉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그것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윤리”¹⁰⁾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논자는 이하에서 그러한 새로운 노동 윤리의 가능성을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타진해 볼 것이다.

2. 노동 기회의 역학과 새로운 윤리

노동과 관련한 현대 사회의 가장 뚜렷한 인상들 중 하나는 ‘자동화’와 ‘정보화’라는 말로 특징지어지는 기술 발달의 새로운 국면이 노동 없는 삶을 21세기 인류의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1995년에 출간된 『노동의 종말』¹¹⁾에서 인간 노동자들이 이른바 실리콘칼라, 즉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인상적으로 묘사한 바 있다. 비비안느 포레스테(Viviane Forrester)는 이듬해에 출간된 『경제적 공포』¹²⁾에서 하나의 역설적인 수사법을 통하여 그러한 현실의 비극적인 성격을 한층 더 분명히 부각시킨다. 그녀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조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이상한 시대에 와 있다.”¹³⁾ 왜냐하면 노동 기회의 점진적인 소멸을 ‘해방’이 아닌 ‘재난’으로

10) R. Donkin, *Blood, Sweat & Tears: The Evolution of Work*, Texere, New York & London 2001: 박정현 역, 『피, 땀, 눈물: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바다출판사, 서울 2005, 500쪽.

11) J. Rifkin,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G. P. Putnam's Sons, New York 1995: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서울 1996.

12) V. Forrester, *L'horreur économique*, Fayard, Paris 1996: 김주경 역, 『경제적 공포』, 동문선, 서울 1997.

13) 같은 책, 201쪽.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오직 착취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자들”¹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적으로 말해서 치열한 경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하는 시대, 노동의 질과 내용이 불문에 부쳐지는 시대, 이른바 소외된 노동마저 노동자 자신의 욕망이 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려 왔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요원한 경제적 궁핍에 상당 기간 시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과 적성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관적 자의식에 줄곧 시달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곧 노동 기회의 상실, 노동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궁핍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한 윤리적·문화적 시련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실업자들은 ‘구매력’과 함께 ‘자존’을 잃게 된다. 실업에 수반되는 그와 같은 혹독한 정체성의 시련을 지니는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 단순히 일을 통해 돈을 벌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원칙인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정의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술한 바와 같은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을 더 이상 경기의 변동에 의존하는 상대적 과잉 노동 인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재의 대량 실업은 흔히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실업 계급’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그러한 시각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과 유사

14) 같은 책, 250쪽.

15) A. Gini, 앞의 책, 31쪽.

한 노동의 인간학과 그에 기초한 인간적인 노동의 이상을 순진한 규범주의적 오류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인간의 노동을 생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해 나가는 자동화와 정보화의 위력은 ‘숙명적인’ 종류의 힘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의 점진적인 소멸은 단연코 ‘비가역적인’ 성질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발터 Ch. 짐머리(Walther Ch. Zimmerli)의 다음과 같은 단언은 그와 같은 시각의 한 전형형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실업의 문제를 안고 서 있지만, 이 문제는...일시적인 경제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사회의 고유한 구조적 속성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앞으로 더욱더 진전될 경우에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실업자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¹⁶⁾

이러한 ‘포스트 노동 사회(post-work society)’의 비전은 일견 현대 기술 문명의 총아인 노동 절약형 테크놀로지의 ‘논리적인’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의 산업 사회를 지탱하던 제조와 서비스 부문 노동 인구의 상당수는 불필요한 ‘잉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앙드레 고르(André Gorz)는 자동화라는 기술 발달의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게 “점점 더 적은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현행의 역동적인 과정을 관리”¹⁷⁾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는 “현재 진행 중인 기술적 변화의 가능한 의미”¹⁸⁾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자동화 시대의 사유 필연성이라는 것이다.

16) W. Ch. Zimmerli, “Vom ‘Glück’ der Arbeitslosigkeit”, in: Hans-Ludwig Ollig(Hrsg.), *Philosophie als Zeitdiagnose: Ansätze der deutschen Gegenwartsphilosoph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91, 106쪽.

17) A. Gorz,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erso, London & New York 1989, 200쪽.

18) 같은 책, 184쪽.

그런데 그러한 사유 필연성의 엄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노동 종말의 사유 필연성일까? 우리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는 않는 다른 가정, 즉 노동의 종말은 기술적인 필연이며 따라서 ‘고용’은 이제 무망한 ‘환상’에 불과한 개념이 되었다는 가정까지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논자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합의를 통하여 계획되고 실험되는 인간 사회에서 대량 실업이 첨단 기술 덕에 더욱 짧아진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에 관한 현실적인 전망은 ‘노동의 종말’에 관한 묵시록적인 예언과 신중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은 장시간 노동의 질곡에서 벗어나 노동과 여가 양면에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노동의 종말’은 단지 ‘종말 이후’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집단적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예컨대 노동 인구의 대다수가 전보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면서 건강히 일과 여가를 향유한다는 것과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이 노동 없는 사회의 보편적인 빈곤이나 권태를 이른바 ‘20 대 80 사회’의 공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의 종말’이 과연 기술적인 필연인지, 아니면 기술의 특정한 사용 논리인지를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만 한다. 만약 후자라면, ‘노동의 종말’은 자동화라는 기술적 환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가역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자리를 담보로 한 노동력 관리의 이데올로기이자 현금의 대량 실업 사태를 정당화하는 현상 유지의 신화일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엄밀히 말해서 노동이나 고용 자체의 폐지로 나아가는 전 지구적 논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첨단 기술에 의해서 제공된 노동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생산 수단의 진화는 구조적인 종류의 대량 실업을 영구화할 자연적 재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의 공유를 통하여 대다수 노동 인구의 자유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포스트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post-Protestant work ethic)의 윤곽을 어떻게 그려 나가야만 할까? 논자가 보기에 ‘종말 이후’를 대비하는 현재의 가장 유력한 대중적 정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무한 경쟁의 규범을 주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속적인 ‘노동의 종말’ 테제에 응축된 암울한 시대상은 정보 혁명 시대의 사적인 생존 비법을 전수하는 갖가지 예언서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미래학자 이언 에인절(Ian Angell)은 2001년에 출간된 『지식 노동자 선언』¹⁹⁾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투기 감각과 상징 조작 능력을 보유한 극소수 골드칼라만이 ‘종말 이후’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살아남으려면 일을 해야만 하고, 일을 하려면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개방된 노동 기회를 거머쥐어야만 하며, 그러한 기회를 거머쥐려면 정보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남다른 전문성을 필사적으로 구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존의 가인 명령들은 평등주의나 정의와 같은 사회 윤리적 비전에 어떠한 ‘감상주의적’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적자(the fittest)가 될 것만을 요구하는 무한 경쟁의 규범하에서는 승리가 곧 정의이며, 패배는 불의이다. 사적인 성공의 윤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유를 금지’한다.

논자는 그와 같은 천박하고 즉물적인 형태의 다윈주의가 ‘노동의 종말’ 테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리프킨과 포레스테의 진정성에 부합하는 모종의 사회 윤리로 대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다소 과장된 어조로 고용의 환상에 집착해 온 노동 사회의 낡은 사고 패러다임을 버려야만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이른바 제3부문, 즉 시장 부문도 공공 부문도 아닌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부문을 활성화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국외자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19) I. Angell, *The New Barbarian Manifesto: How to Survive the Information Age*, Kogan Page, London 2001; 장은수 역, 『지식 노동자 선언』, 통셀러, 서울 2001.

사회적인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²⁰⁾ 요컨대 “첨단 기술에 의해 인간 노동력이 대체되는 후기 산업 사회의 목표는 개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화된 활동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²¹⁾는 것이다. 실제로 20 대 80 사회에 대한 묵시록적 예언들이 실업이나 불안전 취업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무한 경쟁의 대열로 오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적인 일자리의 창출은 현대 사회의 이성적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해야만 하는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프로그램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차후에 각국의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광범위한 자원 봉사 활동에 의하여 지탱되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논자는 이에 더하여 노동의 기회와 관련된 최근의 종말론적 수사법에 가려 은폐되어 온 전통적 고용 부문의 비인간적인 고용 관행들을 인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도 최대한 경주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발달된 생산 기술 때문에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는 통속적인 견해의 밑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의심스러운 한 전제, 즉 ‘노동자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산입되는 성가신 비용 요소일 뿐이므로 더 이상 노동력 착취가 이윤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자를 버려도 무방하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종말’은 기술적인 필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특정한 사용 논리인 것이다. 전통적인 고용 부문에는 아무리 일을 시켜도 지치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충직한 실리콘칼라가 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실리콘칼라가 인간 노동자를 도울 수는 없고 오직 축출할 수 있을 뿐이

20) 이에 관해서는 J. Rifkin,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V. Forrester, *L'horreur économique*; 김주경 역, 『경제적 공포』 참조.

21) 이진우,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21세기 정치문화에 관한 철학적 성찰』, 한길사, 서울 2000, 322쪽.

라는 가정은 다분히 작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문에서도 노동의 기회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모색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시장 부문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 공유의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만 하며,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들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부문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현대 시민 사회의 비판적인 공공성으로 애써 성취해 내야만 하는 규범적 과제들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시장이 ‘알아서 잘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윤만을 추구하던 자본가들이 커다란 파이를 갖게 된 순간부터는 저절로 자선가가 된다는 자연법칙도 아직은 발견된 적이 없다.²²⁾ 그렇다면 새로운 노동 윤리에서 다루어질 노동 기회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영적인 분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결핍과 실패를 보정하는 국가와 시민 사회의 공적 역할과 관련된 문제임이 분명하다.

3. 노동 소외의 일상성과 새로운 윤리

비판적인 공공성의 범정에 회부되어야 할 새로운 노동 윤리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노동의 질 저하와 관련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탄핵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 소외에 대한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분석이었다. 산업 사회의 초창기였던 산업 혁명기에 노동자의 대다수는 실로 억압적인 조건하에서 마치 시시포스의 바위와도 같은 저기능 노동을 끊임없이 반복

22) 그런 의미에서 “‘자발성’에 입각한 사회 연대라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연대 개념은 그 실현 가능성이 시장 원리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관리·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이상 기존의 제도화된 사회 연대에 대한 공허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이종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실천윤리학: 여가와 노동공유 논의를 중심으로」, 『윤리문화연구』 제3호, 윤리문화학회, 화남, 서울 2007, 129-30쪽)

해야 했지만,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러한 노동 조건은 소위 ‘인간적인 생산’의 기준들을 멀찍이 이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생산’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개성적인 자기실현’과 ‘생산물을 매개로 한 인간들의 호혜적인 연대’를 담보하는 능동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는 생산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중으로 긍정하게 된다. 첫째, 나는 생산에서 나의 독특한 개성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일하는 가운데 개성적인 삶의 표현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볼 때에는 나의 인격을 대상적인 힘으로, 즉 감각적으로 직관할 수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힘으로 인식하는 개인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나는 내가 나의 생산물을 누리거나 사용할 때 나의 노동으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느낌, 즉 인간 존재를 대상화하여 다른 인간 존재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상을 만들어 냈다는 느낌을 직접 만끽하게 될 것이다.²³⁾

물론 이와 같은 노동의 인간학은 다분히 이상주의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기쁨을 수반하지는 않는 생계의 방편임에 틀림없으며, 그런 한에서 인간이 생물학적인 필연의 굴레에 묶여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철학적·인간학적 기준들을 초창기 산업 사회의 관찰에서 얻은 경험적 통찰과 결합함으로써 소위된 노동의 문제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단순 협업에서 시작되어 매뉴팩처 단계를 지나 대공업에서 완성된 분업의 발달 과정은 “지식과 통찰력과 의지”와 같은 “생산의 정신적인 잠재력들”을 점차적으로 자본에 집중시킴으로써 “부분 노동자들(Teilarbeiter)”²⁴⁾의 탈숙련화와 정신적인 불구화를 가속화해 온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그러한 탈숙련화와 정신적인 불

23) K. Marx, "Auszüge aus Mills "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462쪽.

24) K.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Engels Werke, Bd. 23*, Dietz Verlag, Berlin 1987, 382쪽.

구화가 산업의 우연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업 발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생산자의 능동적인 사유는 오류에 빠지기 쉽지만 오직 매뉴얼대로만 움직일 것을 강요받는 생산 기계의 틀에 박힌 수족 운동은 그러한 사유에 의존하지 않고도 산업을 가동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산업 혁명기의 노동자는 자율적인 인격이 아니라 정신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끔 기계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생산 요소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자율을 알량한 빵 조각과 교환해야만 했던 프롤레타리아트의 단말마적 일상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2시간 동안 천을 짜고, 실을 잣고, 구멍을 뚫고, 선반을 돌리고, 집을 짓고, 삽질을 하고, 돌을 깨고, 짐을 나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은 “생존을 위한 제물”, 즉 “그를 식탁과 술집과 잠자리로 데려다 주는 벌이”²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컨대 마르크스 시대의 “인간(노동자)은 먹고 마시고 생식하는 등의 동물적인 기능에서만, 아니면 기껏해야 집이나 옷차림 따위에서만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인간적인 기능에서는 자신을 동물로 느낄 뿐이다.”²⁶⁾

문제는 그와 같은 노동자의 정신적인 불구화가 마르크스의 시대 이후로도 대량 생산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고도 소비 사회의 기반 위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른바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테일러주의(Taylorism)의 노동 조직 원리와 그것의 기술적인 구현이라 할 수 있는 포드주의(Fordism)의 분업 원리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산업은 노동 현장의 파편화된 기계적 절차들과 관료주의적 조직 체계에 대한 항의에 끊임없이 직면해 왔다.²⁷⁾ 동일한 맥락에서 허버트 마르쿠제

25) K. Marx, "Lohnarbeit und Kapital", in: *Marx-Engels Werke*, Bd. 6, Dietz Verlag, Berlin 1982, 400-401쪽.

26)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514쪽.

27)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두뇌노동과 손노동의 분리를 나타내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리

(Herbert Marcuse)는 기술의 진보와 대공업의 발달에 수반되는 노동 현장의 일차원적 지배 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노동의 기계화와 합리화는 기계에 표준적으로 순응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복종하는 행동 양식을 만들어 냈다. 기계는 자율성과 자발성보다는 오히려 적응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자율성과 자발성은 기존 생산 기구 내에서의 유용성과 작업 능률의 차원에 국한된다. 지적인 노력은 기술자들과 전문가들과 관리들의 과제가 된다.²⁸⁾

따라서 예컨대 “컨베이어 작업이나 천공기로 카드에 구멍을 뚫는 작업 또는 자동화된 검사 작업의 경우처럼 특정한 작업 계열 내에서 미리 주어진 동작을 수행”²⁹⁾하기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브레이버맨(Harry Braverman)이 이윤 동기에 예속된 자본주의적 산업 노동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부터이다. 이에 관해서는 H. Braverman,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 London 1974; 이한주, 강남훈 역,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까치, 서울 1998, 81-124쪽 참조.

- 28) H. Marcuse, *Die Gesellschaftslehre des sowjetischen Marxismus*, Herbert Marcuse Schriften, Bd. 6,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9, 92쪽. 그러나 마르크제는 동시에 기술이 그와 같은 지배의 완성을 통하여 지배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환언하면 인간 노동력의 사물화는 오직 사물화의 완성을 통해서만 지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의 자동화는 그러한 사물화의 완성이므로 노동자에게는 억압의 족쇄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필요 노동의 전면적인 기계화를 뜻한다(이에 관해서는 같은 책, 20-21쪽, 92쪽 참조). 이렇게 볼 때 마르크제의 궁극적인 관심은 ‘노동 내에서의 해방’보다는 오히려 마르크스가 자유의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상화했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에 관해서는 K.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Engels Werke, Bd. 25, Dietz Verlag, Berlin 1987, 828쪽 참조)에 쏠려 있는 듯하다. 여가로 이해된 자유와 노동이 상징하는 필연성의 관계는 중대한 형이상학적·인간학적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상세히 다룰 수 없다. 다만 논자는 ‘필연의 왕국’의 바깥에는 결코 ‘자유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차체에 밝혀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무위의 권태가 아닌 노동의 성취야말로 자유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개요에 관해서는 소병철, 「‘노동 종말’ 시대의 노동: 자율적인 삶의 사회철학을 위한 예비적 고찰」, 『철학』 제73집, 한국철학회, 2002, 213-34쪽 참조.

놓은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한 노동자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사전에 주어져 있지만, 그 자신의 지성이나 창의성이나 책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노동과 분리된 지적 능력의 소산들이 컨베이어와 같은 기계 장치의 리듬이나 작업장 전반의 엄격한 노동 규율로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인격’이 아닌 ‘기능’으로서의 산업 노동자가 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할 일이란 오직 그러한 리듬과 규율에 기계적으로 숙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포스트 산업 사회의 견인차로 간주되는 정보통신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이와 같은 노동 소외의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다. 컴퓨터 시스템을 매개로 한 첨단 기술은 일견 고도의 숙련과 자율과 책임 능력을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J. 피오르(Michael J. Piore)와 찰스 F. 세이블(Charles F. Sable)은 컴퓨터야말로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지양함으로써 장인 노동의 부활을 선도할 포스트 산업 사회의 총아라고까지 주장한다.

대부분의 기계들이 사용자가 따라야만 하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는데 반하여 컴퓨터의 매력은...사용자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과 사고 습관에 적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장인의 도구(artisan's tool)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계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는 사용자의 생산적인 능력에 부합하는 동시에 그것을 확장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테크놀로지는 미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전용 기계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장인적인 생산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진보의 방향을 전환시켜 온 셈이다. 컴퓨터의 출현은 생산 과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해서 기계는 다시 조작자에게 종속된다.³⁰⁾

29) A. Schwartz, "Sinnvolle Arbeit", in: A. Honneth(Hrsg.), *Pathologien des Sozialen: Die Aufgaben der Sozialphilosophi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94, 140쪽.

30) M. J. Piore and C. F. Sable,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목적’과 ‘사고’를 형성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최선의 결정권자를 참칭하는 경영진의 독단이다. 물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탁월한 창의성과 책임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가 발휘한 것은 다만 ‘주어진’ 기술적 목표의 달성을 꾀하는 도구적 합리성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포괄적인 목표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권한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할 권한도 가질 수가 없다. 그는 단지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경영진의 독단적인 구상이 부여 놓여지는 주형일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인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노예’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다. 고르는 그러한 정보 노동자의 사이버 자율과 그것이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적실히 포착하고 있다.

전문적인 훈련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전시키지만, 노동 속에서는 그것들이 결코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일을 하려면 책임감과 독립심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최종 목표는 항상 사전에 결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일을 할 때 요구되는 것은 ‘타율 내에서의 자율(autonomy within heteronomy)’인 것이다.³¹⁾

그렇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노동자의 자율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신장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로 간주될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빈틈없는 수직적 분업 구조로 조직된 전산망의 작동을 감시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포스트 산업 사회의 정보 노동자와 컨베이어 앞에서 불박이가 된 산업 사회의 공장 노동자는 닮은꼴이다. 더욱이 첨단 컴퓨터 기술은 그 자체의 공학적인 전문성에서 유래하는 비교적인

Prosperity, Basic Books, New York 1984, 261쪽.

31) A. Gorz, "New Agenda", in: *New Left Review*, Vol. 184, London 1990, 40쪽.

(esoteric) 난해성으로 인하여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수직적 분업의 원리와 본성적으로 친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소위 ‘디자인’의 권한을 가진 극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지식과 자율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무지와 타율의 상태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새로운 정보 기술들은 나름의 고유한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조망할 수 없는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술적 ‘전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술공학과와의 구체적 관계에 있어서는 ‘무지’의 태도가 지배적이다. 근세에 들어와 특권적 지위를 차지한 호모 파베르(homo faber)³²⁾는 이제 과학과 기술에 의해 규정된 진화 단계에 있어서 전능하지만 동시에 무지한 생산자가 된 것이다.³³⁾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노동 소외의 일상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중요한 것은 빅 브라더 스타일의 노동 통제가 만들어 낸 “산업적 복제 인간”³⁴⁾이 억압받지 않는 개성적 자기실현의 가치를 신봉해 온 자유주의적 개인의 얼굴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기초한 수직적 노동 통제는 조건 반사적인 단기 능률 향상의 대가로 직무 만족도와 사기의 저하를 불러오는 한편 노동자 개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능력과 소질의 다양성을 말살함으로써 자유롭게 자기를 계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원천에서부터 박탈한다. 그러한 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부당하게도 노동자가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고용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원된 도구로 간주되는 관행이 오래전부

32) 원문에는 이 술어가 ‘호머 파버’로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이를 ‘호모 파베르’로 고치고 라틴어 원어를 병기했다.

33) 이진우, 「노동이 없는 시대의 인간 소외」, 『철학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98, 58쪽.

34) R. Donkin, *Blood, Sweat & Tears: The Evolution of Work*: 박정현 역, 『피, 땀, 눈물: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497쪽.

터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연 바뀔 수 없는 관행일까?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직무, 즉 그들이 가진 능력과 소질을 십분 발휘하며 열정을 쏟아 부을 만한 직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아마도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경영자들의 도구적인 합리성이 일정 정도 저해되는 결과가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경영자의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권력의 영향권에 있는 대다수 노동자의 자율성을 박탈해 왔던 종래의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자율의 이념에 기대어 스스로를 정당화해 왔던 자유주의 사회는 머잖아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그들이 지닌 권력을 전횡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동자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직무의 성격과 질,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 노동의 조직 방식, 업무의 우선순위,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수준, 근무 및 교대 일정, 휴가 일정, 임금과 수당, 인사와 승진, 고용의 안정성, 보험 혜택 등의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권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노동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들의 성취와 기여를 높일 수 있는 경영 원칙을 개발해야만 한다. 보통 수준의 건전한 지성을 가진 성인 노동자들은 그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조건들이 철폐될 경우 노동의 설계 및 재설계와 관련된 그러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영국 레일랜드 자동차 회사의 트럭 생산팀장인 존 올리버(John Oliver)는 1997년 6월에 가졌던 리처드 동킨(Richard Donki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짧지만 함축적인 증언을 들려준 바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작업에 임할 때 그들의 두뇌를 옷걸이에 걸어 두기를 기대하곤 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변했다. 오늘날 그들은 새로운 라인의 계획이나 조립 공정의 개선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³⁵⁾

35) 같은 책, 326쪽.

이와 같은 경영과 노동의 결합은 구상과 실행의 기능적인 분리를 점차적으로 지양하여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호혜적 역할 분담의 구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시민 사회의 비판적인 공공성에 의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규범적 과제이다. 이윤 극대화 이외의 모든 도덕적 자기입법을 포기한 경영자는 본질적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일 뿐이며, 그들의 경쟁 무대인 시장은 본질적으로 무도덕적(amoral)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기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의 질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 윤리의 문제들 역시 노동 소외를 노예적으로 감내하기 위한 노동자 개개인의 영적 분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라 노동 소외를 방임해 온 시장의 무도덕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와 시민 사회의 공적 역할과 관련된 문제들이 분명하다.

4. 소비 사회의 출현과 문제의 중층화

지금까지 논자는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 윤리의 윤곽을 비판적인 사회 윤리의 모습으로 그려 보았다.³⁶⁾ 마지막으로 논자는 새로운 노동 윤리가 다루어야 할 대량

36) 이는 물론 새로운 노동 윤리가 오직 사회 윤리로서만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적인 색채만 탈각된다면 개인 윤리로서의 노동 윤리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개인으로서의 나는 나의 노동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봄으로써만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량 살상 무기나 위험한 장난감 혹은 유해 식품을 제조하는 노동자나 범죄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변호사는 확실히 무가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만일 껌 공장이나 허위 광고 대행사 혹은 싸구려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한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기에 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A. Maslow, *Maslow on Management*,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8, 16쪽; R. Donkin, 앞의 책, 355-6쪽에서 재인용)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노동 윤리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인 윤리이지만, 논자는 다만 대량 실업과 노동 소외라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질곡이 노동에 대한 개인적 ‘동기 부여’의 문제

실업과 노동 소외의 문제에 미묘한 복잡성을 부여하는 현대 소비 사회 특유의 집단 심리적 문제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산업 시대의 대량 생산 기술이 탄생시킨 대중 소비 사회는 주지하다시피 ‘소비자’라는 이름의 인간을 “현대적인 주체와 시민의 모델”³⁷⁾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자의식에도 불가피한 영향을 미쳐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에 부여해 왔던 의미 자체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소비 사회의 노동자에게 있어 노동은 더 이상 개성적인 자기실현의 기회도 사회적인 연대의 매개도 아니다. 노동은 단지 소비 사회의 시민권인 구매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치러야만 하는 매일매일의 통과 의례일 뿐이다. 지니의 압축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더 이상 창조하고 공헌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³⁸⁾인 것이다.

이러한 소비주의의 에토스는 ‘대량 실업’의 문제를 ‘치열한 취업 경쟁’의 문제로, ‘노동 소외’의 문제를 ‘영웅적인 인종(忍從)’의 문제로 대치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의 사회적인 기원과 책임성을 교묘히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에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필코 고임금의 일자리를 쟁취하여 노동 소외를 하염없이 감내하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현대 노동자의 상당수는 노동 소외의 고통이 그것의 반대급부인 소비 사회의 물질적 혜택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는 한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된 노동의 체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노동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³⁹⁾ 덕분에 소비 사회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동일

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노동의 규범적인 ‘기준’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려는 동기에서 새로운 노동 윤리의 사회 윤리적인 성격을 주로 부각했던 것이다.

37) D. Slater,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Polity Press, Cambridge 1997, 10쪽.

38) A. Gini, *My Job, My Self: Work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Individual*: 공보경 역, 『일이란 무엇인가』, 122쪽.

39) 동킨은 그러한 합의를 ‘파우스트의 계약’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1914년 1월

한 맥락에서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현대 소비 사회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상당한 수준의 복지는 다름 아닌 노동 소외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시민권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예견적인 산업-기계가 별 탈 없이 기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복지를 창출하도록 도와준다”⁴⁰⁾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암묵적 합의를 의식적으로 내면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합리성에 대한 고르의 비판적 분석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고임금만 보장받는다면 악명 높은 노동 소외의 역사적 상징이었던 포드의 조립 라인 앞에라도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⁴¹⁾ 그렇다면 소비의 향락은 그들에게 있어 소외된 노동의 알리바이인 셈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알량한 빵 조각이 아니라 빵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소비 사회의 엘리트 시민이 되기 위하여 만인이 인격의 자율과 존엄을 제물로 바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소비 사회의 정당성에 관하여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행복한 소비를 위하여 불행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자기실현을 성취하고 있는가? 논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소비주의의 역동성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된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소외에 의하여 훼손되는 삶의 통합성과 관련된 이유이다. 먼저 정체성의 위기 문제를 살펴보자. 소비 사회의 노동자는 그의 정체감의 유일한 근원인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포드의 생산 조립 라인을 받아들인 것은 파우스트의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가족과 자신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R. Donkin, 앞의 책, 238-9쪽)

40) C. Taylor, "Die Unvollkommenheit der Moderne", in: A. Honneth(Hrsg.), *Pathologien des Sozialen: Die Aufgaben der Sozialphilosophie*, 94쪽.

41) 이에 관해서는 A. Gorz, "Ökonomische Rationalität und Lebenswelt", in: A. Honneth(Hrsg.), *Pathologien des Sozialen: Die Aufgaben der Sozialphilosophie*, 236쪽 참조.

대가로 자아의 ‘탈역사화’라는 부조리를 감당해 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비 사회는 고삐 풀린 욕망을 자극하는 갖가지 상품들의 불연속적인 파노라마를 소외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눈앞에 화려히 펼쳐 놓음으로써 쉴 새 없이, 그리고 점점 더 짧은 주기로 과거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갱신되는 상품들의 현재성에 스스로를 민첩히 적응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기(傳記)로 이해될 수 없는 삶, 욕망과 충족의 영원한 현재적 순환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로서의 노동자는 “순전히 현재 시제 속에서 살며, 따라서 일관된 자아(그런 자아는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를 형성할 수 없고, 대신에 끝없는 의미의 강위를 혼돈 속에서 표류한다.”⁴²⁾ 하지만 그는 그러한 혼돈의 여하한 재구성으로도 스스로의 연속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쇼윈도에서 골라야만 하는 소비자에게 ‘자아’란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 하나의 ‘프로젝트’인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주의가 조장하는 삶의 이질적인 양극화는 자기실현의 주체인 인격의 통합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왜냐하면 피땀 어린 노고 뒤에 찾아오는 소비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은 일할 때에는 살지 않고 살 때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며, ‘인간’ 또한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은 매일의 퇴근과 함께 망각되어야만 할 악몽이지만, 소비로 채워진 여가는 근무 중에도 계속 기억하고 동경해야만 할 본래적 현실이다. 하지만 소비 사회의 평균적인 일상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자기모순에 찬 분열된 인격”⁴³⁾이 자율성의 최후 보루로 여기는 상품 선택의 자유는 엄밀히 말해서 ‘행동주의적인 자유’, 즉 상업 광고와 쇼윈도가 주는 자극에 대한 행동 심리학적 반응에 다름 아닌 경우가 많다.⁴⁴⁾ 그렇

42) D. Slater, 앞의 책, 197쪽.

43) M. Horkheimer u. T.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69, 140쪽.

44)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은 상업 광고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

다면 노동 소외의 반대급부인 소비의 자유가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자기 실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리라는 일반의 믿음은 수세기를 풍미했던 물량주의적 진보 개념⁴⁵⁾이 조성해 온 집단적 최면 효과의 일부일 뿐임이 드러난다. 바로 이런 연유들로 새로운 노동 윤리에는 중층적인 과제가 부여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노동 윤리는 대량 실업이나 노동 소외 그 자체와도 싸워야 하지만 그러한 비인간적 질곡을 당연시하며 감수하는 태도를 조장하는 소비주의적 시대정신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된다.

(한국고원대학교)

의 욕망을 ‘제조’하고 ‘배치’하고 ‘통제’하는 전능을 발휘한다. 이에 관해서는 S. Ewen, *Captains of Consciousness: Advertising and the Social Roots of the Consumer Culture*,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76: 최현철 역, 『광고와 대중소비문화』, 나남, 서울 1998 참조.

45) 물질적·경제적 가치 척도에만 의존해 온 고전적 진보 개념의 한계와 그것의 극복을 위한 ‘대항 진보(counter-progress)’ 개념의 윤곽에 관해서는 김일방, 「진보에 대한 성찰」, 『철학연구』 제104집, 대한철학회, 2007, 71-92쪽 참조.

참고문헌

- 김일방, 「진보에 대한 성찰」, 『철학연구』 제104집, 대한철학회, 2007, 71-92쪽.
- 소병철, 「‘노동 종말’ 시대의 노동: 자율적인 삶의 사회철학을 위한 예비적 고찰」, 『철학』 제73집, 한국철학회, 2002, 213-34쪽.
- 이재원, 「마르크스의 노동의 윤리성」, 『대동철학』 제29집, 대동철학회, 2005, 123-50쪽.
- 이종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실천윤리학: 여가와 노동공유 논의를 중심으로」, 『윤리문화연구』 제3호, 윤리문화학회, 화남, 서울 2007, 97-136쪽.
- 이진우, 「노동이 없는 시대의 인간 소외」, 『철학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98, 43-70쪽.
- _____,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21세기 정치문화에 관한 철학적 성찰』, 한길사, 서울 2000.
- Adorno, T. W., *Negative Dialektik*,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5.
- Angell, I., *The New Barbarian Manifesto: How to Survive the Information Age*, Kogan Page, London 2001: 장은수 역, 『지식 노동자 선언』, 룡셀러, 서울 2001.
- Braverman, H.,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 London 1974: 이한주, 강남훈 역,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까치, 서울 1998.
- Donkin, R., *Blood, Sweat & Tears: The Evolution of Work*, Texere, New York & London 2001: 박정현 역, 『피, 땀, 눈물: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바다출판사, 서울 2005.
- Ewen, S., *Captains of Consciousness: Advertising and the Social Roots of the Consumer Culture*,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76: 최현철 역, 『광고와 대중소비문화』, 나남, 서울 1998.

- Forrester, V., *L'horreur économique*, Fayard, Paris 1996: 김주경 역, 『경제적 공포』, 동문선, 서울 1997.
- Gini, A., *My Job, My Self: Work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Individual*,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0: 공보경 역, 『일이란 무엇인가』, 들녘, 파주 2007.
- Goetz, A.,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erso, London & New York 1989.
- _____, "New Agenda", in: *New Left Review*, Vol. 184, London 1990, 37-46쪽.
- _____, "Ökonomische Rationalität und Lebenswelt", in: A. Honneth(Hrsg.), *Pathologien des Sozialen: Die Aufgaben der Sozialphilosophi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94, 235-59쪽.
- Horkheimer, M. u. Adorno, T. W.,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69.
- Marcuse, H., *Die Gesellschaftslehre des sowjetischen Marxismus*, Herbert Marcuse Schriften, Bd. 6,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9.
- Marx, K., "Lohnarbeit und Kapital", in: *Marx-Engels Werke*, Bd. 6, Dietz Verlag, Berlin 1982, 397-423쪽.
- _____,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Engels Werke*, Bd. 23, Dietz Verlag, Berlin 1987.
- _____,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Engels Werke*, Bd. 25, Dietz Verlag, Berlin 1987.
- _____, "Auszüge aus Mills "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in: *Marx-Engels Werke*, Bd. 40, Dietz Verlag, Berlin 1985, 443-63쪽.
- _____,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in: *Marx-Engels Werke*, Bd. 40, Dietz Verlag, Berlin 1985, 465-588쪽.
- _____,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Engels*

- Werke, Bd. 42*, Dietz Verlag, Berlin 1987.
- Maslow, A., *Maslow on Management*,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8.
-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Basic Books, New York 1984.
- Rifkin, J.,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G. P. Putnam's Sons, New York 1995: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서울 1996.
- Schwartz, A., "Sinnvolle Arbeit", in: A. Honneth(Hrsg.), *Pathologien des Sozialen: Die Aufgaben der Sozialphilosophi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94, 140-59쪽.
- Singer, P.,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New York 1997.
- Slater, D.,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Polity Press, Cambridge 1997.
- Stroobants, M., *Sociologie du travail*, Éditions Nathan, Paris 1993: 박주원 역, 『노동사회학』, 동문선, 서울 2003.
- Taylor, C., "Die Unvollkommenheit der Moderne", in: A. Honneth(Hrsg.), *Pathologien des Sozialen: Die Aufgaben der Sozialphilosophi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94, 73-106쪽.
- Zimmerli, W. Ch., "Vom 'Glück' der Arbeitslosigkeit", in: Hans-Ludwig Ollig(Hrsg.), *Philosophie als Zeitdiagnose: Ansätze der deutschen Gegenwartphilosoph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91, 96-109쪽.

The New Orientation of Work Ethic: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Opportunity and Quality of Work

So, Byung-Chul

Our work is, in essence, a means of our living and an opportunity of our autonomous self-realization. But it is now faced with two serious trials, mass unemployment and work alienation. Namely, the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whole work force is being driven to despair because of the scarcity of the opportunity to work, and its majority is suffering from the working conditions which ruin the personal autonomy of workers and injure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problem is that we don't have the canons of public and social action, with which we can cope with those trials yet. The traditional Protestant work ethic has not been concerned about the solution of such structural troubles, but only has stimulated their victims, workers to exert themselves more and more. According to such an ethic, work must be a God's calling and a test of his grace, although it is an abominable toil which ruins workers' autonomy and extremely exhausts their mind and body. For that reason, such an ethic imposes an absolute duty to work diligently on numerous powerless workers, but never considers them as the proper subjects of human rights. And so it must be replaced with a certain kind of social ethics which attaches importance to the substantial ensuring of the opportunities to work and the quality of work life. In this paper, I will grope for the possibilities of such a new work ethic from the viewpoint of a critical social ethics, focusing on the two themes of 'the opportunity to work' and 'the quality of work'.

Key Words: Protestant work ethic, new work ethic, mass unemployment, work alienation, autonomous self-realization

소병철 e-mail: oeros10@hanmail.net